에드먼튼 소망교회 Edmonton Hope CRC

<하나님을 말하다>

2020 07 06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를 읽고

홍지현

이 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오해 섞인 주장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책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 속으로 받아들인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나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주장보다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더욱 필요했다. 왜냐하면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크리스천이 없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오해들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서 본 부분은 기독교의 배타성에 관한 부분이다. 회의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 또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신앙으로 종교를 평가해왔다는 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기독교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만 생각했지, 그들이 그들의 논리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었다.

예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느꼈던 그 사람의 악랄함과 비열함 때문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교회를 다니며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릇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지금도 아주 많은 것을 보면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라는 말을 기독교 차원에서 더 널리 홍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현 시점에서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일단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가끔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을 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이미 내가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따르고 행해야 한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캐나다 땅을 밟은 것도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캐나다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또한 주님이 인도하심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곁에 믿음의 멘토를 붙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구하는 것을 결국에는 주시는 것도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다. 이것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나의 의지로만 세상을 사느라 너무 힘들었던 나에게 꿈만 같은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일임은 자명하다. 이제 내 기도 제목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크리스천의 첫 발을 겨우 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있는 현실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지음

양미자권사

이 책의 제목인 "하나님을 말하다" 를 보면서 먼저 내 스스로에게 자문의 시간으로 "미자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 할 것인가?" 물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크게 Part 1과 Part 2로 나뉘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로 기록되어 있다.

저자가 말하는 Part 1,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중 "악과 고통"에서 노예 신세가 된 요셉은 자유를 빼앗긴 채 끔찍한 삶이 이어지는 세월을 경험했지만 그 사이에 요셉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단단해졌다. 나 역시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있음을 경험했기에 지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때때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예비하신 열매를 기대하며 그 고난을 극복할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Part 2,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중 "죄된 본성" 1849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책에서 현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죄'를 규정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 믿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제 존재의 근거를 두고 싶어한다"-P.254- 이 부분은 나의 죄성을 훑어보게 하며 나의 맘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나의 빈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라는 호통으로 들려온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를 따라 교회에 첫 발을 딛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언행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들의 언행은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전도의 메세지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행하는 성도의 삶은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잠재적인 전도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나의 언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이어가기를 다짐한다.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를 읽고서

Youn Park

〈하나님을 말하다〉 이 책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답변을 한다. 프롤로그에서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으며 '의심을 의심하라'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나에게 이 책은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늘 듣던 믿음과 순종… 나에게는 친숙하지도 않고 아니 생각하면 안된다고 했던 '의심을 하라'니…… 저자가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의심의 본질을 파악하며,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Part 1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의 의아함,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잘못된 생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불의한 것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다고 논증하고 있다는 여러 논리들, 그리고 성경의 기적을 사실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악과 고통, 기독교의 자유, 신앙, 성경, 심판 등에 개념을 설명하고 기독교의 타당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전도하거나 청년시절 노방전도를 나가면 그들이(믿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기독교에 대한 의문점과 비판의 질문들을 할 때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 담대하고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지 못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고 그들의 의심하는 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프롤로그에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왜 끌어안아야 하는지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Part2에서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 기독교 신앙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다른 종교와 달리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복음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과 증인들에 이미 검증된 사실이며, 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만큼 증거가 확실한 기적도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설득력 있게 기독교의 전체적인 것을 알려 주어 복음의 틀을 확실하게 만들며,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삼위일체'에서 세 위격은 제 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둔다. 제각기 자원해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상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 독서모임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개인중심적인 신앙인이 아닌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에 날마다 참여하기를 바란다.

팀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를 읽고

최영민

코비드19로 인한 일상의 멈춤에서 이 책을 세 번째로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캐나다에 살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일인가..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싶었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붙지 않아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음파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곱 가지, 배타성, 악과 고통, 속박, 기독교의 불의, 심판, 과학과 기독교, 성경에 질문하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일방적인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는지의 이유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다가가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다. 특히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은 크리스천을 더없이 겸손하게 한다'라는 글귀와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 광신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크리스천답지 못한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나는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구나" 지금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실마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된본성, 종교와 복음, 십자가 부활이 던지는 도전, 영원한삶으로 크게 나누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 중에서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는것에

깊은 동의가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인간은 스스로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게 기독교의 메시지다' 라고 말하며 기독교는 종교나 비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책이 끝 나갈때쯤엔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싶다는 마음의 울림이 다시 요동쳐 오르는 것 같았다. 마지막 크리스챤의 삶을 다룬 부분에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 기쁨을 누릴수있다'고 말하고있다. 나에게도 이런소망이 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만을 위함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의 춤을 추고싶다.

이 책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 봐야하는지 어떻게 믿어야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이사야 43장 7절말씀이 떠오른다.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나의 삶을 그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최고은

기독 독서 모임을 통해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를 접하게 되었다. 저자는 존 파이퍼 목사와의 대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척박한 맨해튼과 뉴욕에서 부흥의 역사 가운데 계신 분이라 흥미로웠다. 돈과 명예, 다양한 인종과 성이 추앙받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혜롭게 운동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저자는 특히 불신자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자 많은 철학자들의 예시를 들고 있다. 책은 불신자들의 의심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받고 그것에 답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 불신자들의 현 시대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들과 그에 대한 답,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근거들을 증거한다. 증거로 제시하느라 많은 주장들이 나열되어 있어 프롤로그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각 시대에 따른 각 국의 시대적 유행하는 사상들을 이해해야 했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마르크시스트 비평이론 같은 논거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학술서나 시, 영화도 찾아 보았다. 그렇게 보자면 결코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되려 어렵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내용으로는 기독교의 배타성과 악과 고통의 주권자, 속박, 신자의 불의, 사랑의 신의 심판,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한 신앙과 성경의 기적에 관한 파트와 하나님의 실존 증거, 누구나 알고 있는 신의 존재, 죄된 본성, 종교와 복음,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사실, 영생에 관한 파트로 나뉘었다. 세속적 가치로 보아 여러가지로 열거해서 논증한 것이지만 신앙적 가치로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정의와 가치'에 대해 파고들어가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선악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옳은 삶이가를 생각해보면 믿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은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기에 사랑과 믿음이 전제된다. 성경에서는 죄된 본성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풀어낸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이기에 충분한 교제가 필요하다. 책에서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만하고 의심만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지 더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촉구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불신자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신자로서의 태도도 점검하게 되었다. 기도는 나의 최소한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심을 믿음으로 천국확장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다.